

만4세 남아, 오늘부터 엄마따라 여탕 못간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만4세 여자아이도 남탕 금지...19년만 개정

오는 22일부터 만4세 이상 남아이 이는 목욕장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출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제까지 목욕탕, 찜질방 등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만 5세

이상의 여성이 출입할 수 없었으나 이를 만 4세로 낮춘 것이다. 이는 지난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조정한지 19년만이다.
그간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됐다. 목욕탕을 통해 레지오넬라, 이질과 같은 수인성 전염병

을 막기 위해 규정한 '유리잔류염수' 농도 기준은 기존 0.2~0.4mg/l에서 0.2~1mg/l로 완화했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3시간씩 받는 위생교육을 비대면으로도 허용했다.
목욕탕, 이발소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종료할 때에는 10일간 예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60일간 청문을 거쳐야 했으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상가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서 숙박업을 할 때에는 독립된 한 층을 통째로 쓴다면 객실 수나 면적과 상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물 일부를 사용할 때에는 객실 수는 30개 이상,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

한국에너지공대·국방대, 학술교류 협약 에너지 안보 교육·학술교류 추진 업무협약 체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와 국방대학교가 에너지 안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골자로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켄텍은 21일 나주 대학 본관에서 윤의준 총장이 정해일 국방대학총장과 학술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55년 설립된 국방대학교는 안보정책, 국방관리 등 국가안전보

장국방분야 전문인재들을 배출하는 종합 안보 교육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교수·연구인력 교류', '학생교류·학점 상호 인정', '출판물, 도서, 교육자료·정보교환', '연구·학술회의(세미나 등), 에너지 안보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주기호 기자

광주·전남소방,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 도입 '속도'

보급 확산, 화재 위험 ↑...진화 장비 도입·교육 강화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도 열 폭주, 화학물질 누출 등 내연기관 차량과는 확연히 다른 배터리 전기차의 특성에 맞춘 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있다.
21일 광주·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69건이다. 이 가운데 광주는 5건, 전남은 2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2017년 1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전기차 화재가 매년 1건 꼴로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기차 화재에 따른 재산 피해는 580여만 원이었고 인명 피해는 1명이었다.
전남에서도 지난해에만 2건의 전기차 화재가 있었다. 특히 이 중 1건

은 소형 SUV의 충전 도중 발생한 화재였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불길 확산 속도가 빨라 차체 대부분이 타거나 그을렸다.
올해 들어서도 전기차 화재는 광주와 전남에서 1건씩 발생했다.
전기차 화재는 가파른 전기차 보급 확산 속도에 따라 해마다 늘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20년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광주 2만 1370대, 전남 2만 6723대에 이른다. 2013년과 비교하면 광주와 전남 모두 각각 133배, 53배가량 급증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와 구조·작동 원리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소화 방법·장비 등도 확연히 달라진다.
광주소방본부 산하 5개 소방서는 전기차 화재 진화에 쓰이는 질식소화 덮개(산소 차단 통한 연소 중지) 11개, 돌진 관창(차체 배터리 집중 살

수용) 20개, 수막 형성 관창(차체 하부 배터리 냉각 촉진) 24개 등을 고루 보유하고 있다.
열 화상 카메라(진화 원거리 감시) 101개, 내전복 세트(갑전 사고 대비 절연화·절연소매·전류 경보기 등) 6개 등 전기차 화재 진화 작업에 필요한 지원 장비도 갖추고 있다.
전남소방본부는 보유 중인 질식소화 덮개 42개를 본부 교육대와 산하 20개 각 소방서에 각각 2~4개씩 나눠 배치하고 있다. 열 화상 카메라 288개와 내전복 166개 세트도 일선 소방서마다 보유하고 있다.
불이 난 전기차를 통째로 들어 올려 물에 담가 진화하는 장비(소화수조·이동식 침수조)도 의무 배치 장비는 아니지만, 내년까지 순차 도입한다.
광주소방본부는 시범 운영·소요 파악 등을 거쳐 구매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전남소방도 장비 구입 우선순위에 따라 구비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자

동구 민선 7기 공약이행률 98.8%...공약완료율 95%

동구는 민선 7기 공약이행률이 98.8%, 공약완료율은 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지난 20일 민선 7기 공약이행사항 최종 점검을 위한 '민선 7기, 2022년 2분기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7기 공약사업 총괄 추진 현황, 주민 의견 반영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약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민선 7기 공약에 대한 최종 마무리 점검을 했다.
동구는 지난 2018년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민선 7기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꾸리고 민선 7기 공약이행 성과 및 과제를 매 분기마다 점검하는 등 4년간 꾸준히 운영해왔다.

또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 지역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하며 주민 참여 기회 제공, 주민 대표성 확보 등 공약 이행의 신뢰성과 공감대를 높였다.
그동안 동구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라는 구정 목표 아래 ▲일자리 민생경제 ▲도시환경 ▲마을복지 ▲생활문화예술 ▲자치공동체 등 5대 분야 41개 공약사업을 역점 추진해 왔다.
동구는 6월 현재 98.8%의 공약 이행률과 95%의 공약완료율을 달성한 가운데 41개 공약사업 중 39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2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이다. /김도기 기자

'희망아카데미 100회' 명사 초청 강연

오늘 김영식 교수 첫 강연...11월까지 총 5회 진행

북구는 올해 100회를 맞이하는 평생학습 교양강좌인 '희망아카데미'를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오는 22일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국제웃음요가문화연구소 소장 김영식 교수(남부대)가 '웃음으로 소통하라'라는 주제로 100회이자 올해 첫 강연을 펼친다.
7월 20일에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우진 이사가 '지구의 마지막 경

고'를 9월 27일에는 북구문화센터에서 김유성 작곡가의 '문화행사, 지역예술가와 만남'이 진행된다.
10월 26일에는 가수 박지현의 '부모공감 토크콘서트', 11월 17일에는 한국역사고전연구소 임용환 소장의 '흥미로운 전쟁사' 강연이 열린다. 모든 강연은 북구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 일부일 경우 당일 다시 볼 수도 있다. /권형만 기자

광주농업기술센터 '안전식품 생산·경영 기반 컨설팅 2기' 운영

오는 30일까지...5개 농식품 가공농가 선착순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식품 가공농가의 식품인증과 위생·품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안전식품 생산·경영 기반 컨설팅 2기'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광주지역 소규모 농식품 가공 농가이며 오는 30일까지 5곳

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서는 방문이나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컨설팅은 식품인증과 위생·품질 등 2개 분야로 나눠 식품인증 분야는 HACCP 및 전통식품 품질인

증 등의 취득을 목표로 진행하고, 위생·품질분야는 농식품 위생·포장 등의 품질 개선을 목표로 진행한다.
7월8일부터 9월16일까지(매주 금요일) 농가당 2회씩 진행하며, 식품 컨설팅트가 가공 현장에 방문해 식품 관련 인증 절차, 관련 서류 등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실제 식품 제조 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용범 기자

광산구 마을복지건강계획 수립단 퍼실리테이션 교육



광주 광산구는 21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2022년 마을복지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마을간사, 팀

장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퍼실리테이션(촉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선 조은양 퍼실리테이터(촉진자)가 강사로 나서 주민 의견 수렴 방법과 의제도출 기술 등을 설명하고,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광산구는 21개 동 마을복지건강계획 수립단(洞動)을 모집하여 동 마을 간사를 선출,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아닌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욕구 및 자원을 조사하고, 생활과제 도출해 복지건강계획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래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